

그래, 절로 가는 거야

울가를 서점가에는 사찰·사찰 숲 등 절집 이야기 풍성

답답한 시대이다. 상처받기 시대이다. 아니, 예부터 세상살이는 녹록치 않았다. 오죽하면 불가(佛家)에서 이 세상을 두고 고통을 참고 견디는 곳이라 해 사바세계라 했을까? 그리고 고히(苦海)라고 했을까?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고통은 변함이 없다. 오직 수행을 통해 그것으로부터 해탈하는 길만이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 사찰을 찾는다.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있다. 울가를 책과 함께 사찰을 만나자.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사찰에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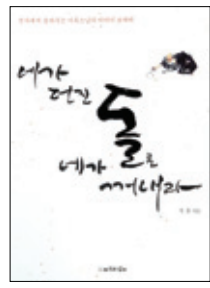
어려서부터 웬지 절집이 좋았다. 그래서 출가했다는 스님이 절집을 순례하며 쓴 글을 모아 책을 펴냈다. 가평 대원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는 승환 스님이 펴낸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이 그것이다. 스님은 서울신문·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책에는 출가자의 눈으로 바라본 절집이 시인의 감성으로 그려져 있다. 특히, 책의 사진은 불교계 최고의 사진작가로 손꼽히는 하지권 작가의 작품들로 채워져 있어 영상미 또한 수려하다. “절집을 순례하는 동안, 나는 내 인생을 다시 배웠다. 힘들고 고됐지

만, 나는 가까이 내 인생수업을 다시 했다... 부처님 말씀은 받아 적지 않아도 내 마음노트에 자연히 기록됐고, 지우고 다시 써야할 해답과 정답도 없었다. 모든 것이 해답이고, 정답이었다.” 승환 스님의 말이다. 책을 읽고 나면, 절집의 죽비소리 목탁소리 범고소리 법고소리가 어느새 귓전에 맴돌고 있다.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 | 글·승환 | 사진·하지권 | 불광출판사 | 1만5000원**



40년 중진수좌의 드라마틱한 이야기 보따리

산골 수좌 기후 스님이 펴낸 '네가 던진 돌은 내가 꺼내라'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써 양약을 삼으라’ 하셨습니다.” <보왕삼매론>의 한 구절이다. 한 스님이 있다. 스님은 어린 시절에는 천연두에 시달렸고, 노년의 한자락을 위암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스님은 병고가 찾아올 때마다 자신을 키워왔다. 지금도 스님은 경북 봉화 구마동 계곡에서 수행을 쉬지 않고 있다. 기후 스님(사진)의 이야기이다. 1943년 경북 안동 오지마을에서 출생한 스님은 첫돌도 되기 전에 천연두를 앓아 사춘기 시절까지 마음고생이 심했다. 1965년 범어사 금강암에서 출가한 스님은 1969년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하고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졸업 후 통도사 해인사에서 강사를 역임한 스님은 용화사 불양사 수도암 등 제방 선방에서 수선안거했다. 경주 기림사에서 6년 동안 묵언정진도 했던 스님은 1991년 호주로 건너나 정법사를 창건했다. 그 후 15년을 해외포교에 주력했

지만 위암 판정을 받고 귀국했다. 한국에 돌아온 기후 스님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 선택했던 것은 함양치료가 아니었다. 스님은 산중 토굴로 들어가 용맹정진을 했다. 그러는 동안 천연두도, 암도 저절로 사라져 버렸다. 지금도 기후 스님은 장대비가 하루만 내려도 그 순간부터 길이 끊기고, 핸드폰도 통하지 않는 심산유곡의 토굴에서 7년째 홀로 지내고 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아온 스님이 최근 <네가 던진 돌은 내가 꺼내라>를 펴냈다. 책은 45년의 출가생활 중 선방에서 20여 년을 보낸 선방수좌 기후 스님이 재미있게 풀어낸 마흔 다섯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행차시절 찾아온 어느 멋진 여인과의 이야기, 수행에 걸림이 될까봐 걸림에 해골바가지를 짊어지고 다녔던 한 수좌의 파계, 차한잔을 마시다가 떠난 일등수좌의 열반, 솔가지 걸매고 떠났던 수좌스님들의 소풍이야기, 고구마 서리를 하다 들킨 사연 등 귀동냥으로도 듣기 힘든 이야기들이 영화처럼 펼쳐진다. 뿐만 아니라 탄허 경보 전강 성철 일하 스님들 쟁쟁했던 선지식들의 치열한 수행담까지 스님의 책에는 모두 담겨 있다. 기후 스님의 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선방수좌가 치열하게 살아온 하루하루를 글로 풀어



낸 까닭이다. “내 얼굴이 이렇게 된 것도 여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조용하게 잘 지내라는 전생의 메시지였습니다.” 스님은 자신을 괴롭히던 천연두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생명까지 위협하던 위암은 어떨까? “조금 살만하고 또 조금 수행의 힘이 생겼다고 자만하고 나부대암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기후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반조하고 있다. 스님은 “힘이 생겼을 때는 늘 조심해야 한

다.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다. 그러나 그것을 자제하기란 어렵다. 나도 그 세력에 속았다”고 허심탄회하게 솔화한다. 스님은 “자신이 암을 떨쳐내기 위해 7년간 용맹정진을 한 덕에 지금의 안목이 생겼다”며 “고통의 속성을 잘 간파하면 언제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귀띔한다. <기신론>의 “고통이라는 것은 참을 의지해 일어나고 참은 늘 고통과 함께 한다”는 구절과 함께. 기후 스님은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으나 삶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약하고 지혜가 없으면 그 걸림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 그리고 결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충고한다. 특히 스님은 “미래의 불행에 미리 겁먹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려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큰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살아야만 참 지혜가 나온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참 지혜가 나오는 방법으로 깊은 명상과 따뜻한 사유를 권한다. 기후 스님은 “명상과 사유를 거치지 않은 지혜는 마른 지혜이다. 참 지혜는 언제나 축축하다”며 “재가자들도 마음공부를 쉬지 말라”고 당부한다. **네가 던진 돌은 내가 꺼내라 | 기후 지음 | 이자리 | 1만3000원** **조동섭 기자**

절집 숲에서 마음의 풍요를 느끼자

개심사 전등사 용주사의 숲술, 내 소사의 전나무숲, 표충사의 죽전수림 등. 책은 사찰 주변의 수려한 삼림의 아름다움을 묘사한다. 다양한 종류의 숲술 중에서도 절집 숲은 장구한 역사성과 전통적 경관미, 삼림 이용의 지혜가 응축된 살아 있는 현장이다. **美 아이오와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민대 교수로 재직 중인 전영우 교수는 사찰의 삼림을 '절집 숲'이라 이름 붙였다. 숲이 포용한 다양한 기능처럼, 절집 숲도 예로부터 여러 가지 기능과 의미를 간직해 왔다. 절집 숲이 지닌 재래적 기능은 성속(聖俗)을 가르는 차폐공간, 수행과 명상과 울력의 수도공간, 전란이나 화재와 같은 유사시를 대비한 가람 축조용 목재의 비축기지 등이다. 저자는 “절집 숲이 오늘날 새삼스럽게 주목받는 이유는 환경과 생태**

의 가치가 고양되는 21세기에 자연 및 생태 소비의 훌륭한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또, 저자는 “숲에서 삶의 질이 물질적 욕망이 아닌 마음의 풍요로 충족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책은 ‘절집 숲이 품고 있는 전통경관’ ‘절집 숲이 지켜온 자연유산’ ‘절집 숲이 간직한 역사’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숲을 즐기는 가장 쉬운면서도 좋은 방법은 우리 주변의 어떤 숲에서나 자기 스스로 풍경속의 한 점경(點景)이 되어 보는 것이다”라고 조언한다.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 글·사진 전영우 | 운주사 | 2만3000원**



사찰 가는 길은 마음공부하는 길

<들음수록 신기한 사찰 이야기>는 한겨레문화센터에서 ‘사찰기행’ 강좌를 맡으며 혼자 또는 수강생들과 전국을 누벼 온 목경찬 선생이 지은 책이다. 책에는 전국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불교문화 에피소드, 절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슬기롭게 가꾼 절집, 감성으로 나무신 불보살님과 이 땅의 역사와 함께한 불교를 살렸다. 저자는 사찰을 찾을 때 버스와 두 다리를 이용한다. 자가용이 흔한 요즘이지만 저자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저자는 시내의 버스와 출발시간을 확인하고 차를 갈아타며 목적지에 도착한다. 산 밑에서는 옛길을 따라 천천히 일주문까지 걸어가는 걸 마다하지 않는다. 자가용으로 손쉽게 일주문으로 가는 이들과 달리 묵묵히 걷는 저자의 모습이 미려스러워 보일지도 모른다. 저자는 “사찰을 찾는 모든 과정이 마음에 내려놓는 좋은 수행이다”라고 말한다. 책에는 저자가 수행하다 찾은 사찰 100여 곳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이야기로 재미있게 사찰을 소개하고 있는 책을 보다보면 사찰 구성요소 사람의 마음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절로 느끼게 된다. **들음수록 신기한 사찰 이야기 | 글·사진 목경찬 | 조계종출판사 | 1만3000원**



사찰 마당서 찾는 우리 문화

김도경 강원대 교수가 대한불교진흥원을 통해 펴낸 <사찰의 앞마당과 뒷마당>은 사찰 마당에 주목해 기술한 책이다. 책은 사찰 마당에 자리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간을 나누고 쓰는 모습을 통해 건축적 기능과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담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다. 사찰로 향하는 사찰의 앞마당에는 여러 가지 조형물을 만나게 된다. 사찰 어귀에 있는 장승, 누구든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 가라는 표시인 하마비, 사찰 앞을 흐르는 시내 등. 이곳과 저곳.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를 지나면 너와 내가, 성곽과 속이 하나라는 일주문을 지나야 한다. 그리고는 부처님 말씀을 천금처럼 여기는 천왕들을 만나기도 한다. 이런 공간들을 지나 사찰의 중심에 이르러야 비로소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고난을 헤치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처럼 사찰의 중심 영역에 이르는 길은 한가지도 하두루 존 재하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사찰의 뒷마당은 한걸음 내딛어 자연과 하나된 자리이다. 저자는 “우리는 여러 숨은 배려가 느껴지는 공간인 뒷마당을 거닐며 자연과 하나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찰의 앞마당과 뒷마당 | 지은이 김도경 | 대한불교진흥원 | 2만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2~10/18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산승회화	유철주	불광출판사
3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4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5	불영이 감춘 스님의 비밀 레시피	일운	담앤북스
6	우리 곁에 계신 33권세음보살 이야기	방경일	운주사
7	우회로 읽는 팔만대장경	진현중	컬처북스
8	슬픔에 더 깊숙이 젖어라 (42장경)	보경	조계종출판사
9	공경인 (한국의 유머 백봉거사와 제자들)	최은초	비움과소통
10	집착을 버려라	히로 사치야	운주사

※웹서툰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불조정맥
The Karma Change of the Buddha and Patriarchs
佛祖正脈

불조정맥 3개국어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佛祖正脈眞影)과 정맥전법계(正脈傳法儀)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편찬, 의역하였다. 한영중 3개국어로 출간하여 세계인들이 불법의 정수를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 증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 거 사 어 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낙엽 밟는 소리에 한 생각 그쳤네

깨달음은 본인 스스로 안다
이제는 방편을 말하리라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출간

간화선(看譚禪)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좋다. 싫다하는 차별 없는 것이 공(空)에 들어간 것이나 정진하여 공(空)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상승법인 선(禪)이다.
간화선 수행이 생활의 일치 되도록 정진인용과 일상 가운데 중독을 바탕으로 서술한 책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수행론 강설
031)721-2148~9
무 아 선 원

불기 닳는일 힘드시죠!!
여주 쉽고 빠르게 닳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특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닳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어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셔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웅

영일상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